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메시지 2

하나님의 경륜 안의 최고봉—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에 이름

성경: 엡1:22-23, 2:10, 15, 4:20-24, 빌1:8, 19-21상, 4:11-13, 요16:13

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예수 안에 있는 실재'(엡4:21), 즉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실질적인 상태가 온전케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로 그분의 많은 지체들 안에서 복사되는 것이다—요14:6상, 엡4:20-24, 갈2:20, 빌1:8, 19-21상, 2:19-30.

- A.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실재이다.
1. 주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분 자신으로부터 하지 않으셨고(요5:19), 그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4:34, 17:4), 그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14:10, 24),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해 하지 않으셨고(5:30),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7:18).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셨으므로(사42:4, 50:4-5, 53:2상, 참조 요 4:13-14, 6:15, 막9:7-8)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다.
 2.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그침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으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 아래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세상 임금인 사탄은 아무 것(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아무 입지, 아무 소망, 아무 기회, 아무 가능성)도 갖지 못했다—요10:30, 8:29, 14:30하, 16:32-33, 뵤전2:23.
 - a. 그분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육체 안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종종 산으로 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마14:23, 막1:35, 눅5:16, 6:12, 9:28.
 - b. 그분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매 순간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다—요5:19, 16:32, 시16:7-8.
- B. 주 예수님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분은 과거에도 우리를 섬기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섬기시며,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막10:45, 눅22:26-27, 막 6:45-51, 요10:10, 6:48, 8:12, 13:4-8, 18:7-9, 눅12:37.
- C.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반복하는 삶이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 의해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다—마11:29상, 17:5하, 뵤전2:21.
- D.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 오늘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사는 방식이어야 한다—엡1:22-23, 2:10, 15, 4:20-24.
- E. 우리는 한 단체적인 본, 몸의 실재,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본이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것이다—마16:18, 계19:7-8.

II. 하나님의 경륜 안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실재의 영이시다—엡4:4상, 요 14:17, 16:13, 요일5:6.

- A.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실재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재가 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실재의 영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재,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실재로 안내하신다—요16:13-15, 빌1:19, 참조 출30:22-25.
- B.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연합된 한 영으로 합해진(롬8:16, 고전6:17) 실재의 영이신,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창17:1, 빌1:19)이야말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든 어떠한 심의 비결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엡1:17, 2:22, 3:5, 16, 4:23, 5:18, 6:18).

II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족케 되는 비결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기를 배워 그분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실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로 누려야 한다—빌 4:11-13, 1:19.

- A.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있을 뿐 내일은 없다. 오늘 주님 안에 안식하며 내일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롬8:6). 공기 같은 영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는 “나는 ...이다” 이시오, ‘지금의’ 그리스도시오, ‘오늘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현재의 임재로서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신다(히3:7, 13, 15, 요8:58, 출33:11, 14).
- B. ‘부활적인’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몸의 공급에 의해 부활을 누리는 나사로같이 되도록 주님의 공활을 위해 그분을 양망해야 한다. 나사로는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소리 없는 간증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주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된 사람이었다—창2:22, 롬9:16, 요12:1-3, 9-11, 참조 전9:4.
 - 1. 우리는 죽어서 냄새가 나고 차갑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비록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들이고 그것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다—요11:38-45, 12:9-11.
 - 2. 부활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 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되었고 우리 자신에 의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고후1:8-9, 렘29:11, 골1:27, 참조 엡2:1-6, 12-13.
 - 3. 부활이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이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벧전 1:13, 잠13:12, 렘17:7-8, 참조 2:13, 사57:20.
- C. 우리는 반드시 매일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기를 배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버터’ 이신 주님을 누리고 가장 달콤한 사랑을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꿀’ 이신 그분을 누려, 그분이 부활 능력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택하여 하나님께는 “예.” 라고 말하고 사탄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사7:14-15, 신32:11-14, 출3:8, 벧전2:2, 시119:103, 참조 딤후1:14, 고전15:10, 고후 5:14-15, 행6:15.

1.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절대성이 되시는 우리의 계속적인 번제로 취하고 누려 재가 됨으로, 범사에 홀로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 되시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한다—레1:16, 6:10-13, 히11:5-6.
 2. 우리의 뛰어난 과거에 머물며(욥29) 우리의 가련한 현재에 대해 한숨을 쉬는(욥30) 대신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반드시 변화시키는 영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롬14:16-17, 히13:15, 시100:4, 119:164, 116:12-13.
 3.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처제도 자신을 잘 돌보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위치만 니 형제님이 1972년 4월 22일에 감옥에서 그의 처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4. 우리는 반드시 자비로운 분이신 주님을 접촉하여 매일 아침 새로워져,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분을 먹어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살고, 그분의 어떠하심이 될 수 있다—애3:22-24, 55-56, 계2:4, 7, 요6:57, 63, 렘15:16, 엡6:17-18.
- D.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실재를 무시하는 라오디게아의 길,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길에서 구원되어야 한다—계3:15, 17, 19-20, 마5:3, 사66:1-2, 눅10:38-42.
1. 라오디게아란 모든 것을 알려고 하나 실재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생명을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반드시 주님께 구해야 한다—계3:14-17, 참조 롬13:11-14.
 2. 우리는 반드시 매일 대가를 지불하여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금을 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게 되어야 하고, 흰 옷을 사서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기름 바르는 영이신 안약을 사서 발라 우리의 눈 먼 것을 치료해야 한다—계3:18.
 3.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시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빌라델비아의 길의 취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복사관으로 만드시려는 그분의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바란다—7-13절.